

# 우리나라 여성청년의 다차원적 빈곤에 관한 연구

유지영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A Study on Multi-dimensional Poverty of Female Youth in Korea

Jiyoung Yoo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Namseou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청년빈곤이 소득결핍만이 아닌, 주거결핍, 근로결핍, 건강결핍 등 삶의 다양한 차원에서의 결핍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던 여성청년 가구의 빈곤 및 결핍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한다. 다차원적 빈곤은 소득, 근로, 주거, 건강의 네 가지 차원으로 측정하였다. 표본은 한국복지패널 10년치 자료에서 pooling한 2630명의 1인 가구 여성청년이다. 분석도구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분석틀은 차원별 결핍율, 결핍차원간 상관분석, N개 차원 빈곤 중첩률이며 이를 위해 빈도분석, 평균분석, 상관분석 등의 기술통계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여성청년은 근로와 주거에서 다른 차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핍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두 개 차원이 동시에 빈곤인 여성청년 비율도 다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는 청년 여성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구축, 중소기업과의 일자리 매칭, 장기전세주택 대상자 중 청년여성 1인 가구 할당 등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와 함께 여성청년 스스로의 공유경제 공동체 설립 등도 대안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여성청년, 청년, 빈곤, 다차원적 빈곤, 근로빈곤, 주거빈곤

Abstract Present study notes that youth poverty is not only an income deficit, but also a deficit in various dimensions of life such as housing, work and health deficit. Multidimensional poverty is measured by four dimensions: income, work, housing and health. The sample is a 2630 one-person household female youth pooled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10-Year Data. The analysis tool used SPSS statistical program, and the analysis framework was the deficiency rate by dimension,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deficiency dimension, and the overlapping rate of N dimension poverty. As a result, women's youth in Korea had higher deficit rate in terms of work and housing than other dimensions, and the proportion of women youth who were both poor in work and housing at the same time was also relatively higher than in other case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poses the construction of customized job services, job matching with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allocation of one young woman's household among the targets of long-term chartered housing. Female youth's sharing-economy association should be considered as alternatives.

Key Words : Female Youth, Youth, Poverty, Multi-dimensional Poverty, Working Poverty, House Poverty

\*Funding for this paper was provided by Namseoul University year of 2018

\*Corresponding Author: Jiyoung Yoo(jiyoungyu@gmail.com)

Received September 5, 2019

Accepted October 20, 2019

Revised September 25, 2019

Published October 28, 2019

##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한 기사에 의하면 취업의 어려움을 겪은 여성 및 청년들이 식당 주점 등의 저임금 직종으로 몰린다고 한다. 또한 여성 청년 구직자의 93%가 구직 장벽이 너무 높다고 호소하고 있다[1]. 청년 실업률은 2019년 1월 기준 8.9%으로 37만 8천명이 실업자이다(KOSIS<sup>1)</sup>). 청년층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 갈 핵심 생산인구이자 경제순환을 이끌 핵심 소비계층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청년들의 다수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혹은 일을 하고 있는 데도 불안하고 가난하다. 한 연구에 의하면, 청년들이 너무 돈이 없어서 투잡을 뛰고, 잠을 줄여 밤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침은 거르고, 삼각김밥으로 점심을 때우고, 저녁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집이 아닌 방에서 살고, 임금체불, 임금 떼이기를 겪으며 살고 있다[2]. 청년들의 삶이 행복과 성취보다는 불안과 결핍으로 구성되고 있다. 그들의 삶이 실업,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이직, 구직, 고시원, 높은 등록금 등 현재 삶의 부담과 미래 삶의 불안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년들의 실업과 실직은 다시 말해 이들의 삶이 다양한 차원에서의 결핍, 다양한 차원에서의 빈곤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청년 빈곤이 소득 빈곤만이 아닌, 주거빈곤, 근로빈곤, 건강빈곤 등 삶의 다양한 차원에서의 결핍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던 여성 청년들 삶의 빈곤에 집중하고자 한다. 청년정책에서도 젠더적 관점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여성청년은 우선 순위에서 밀리거나 소외되어온 측면이 있었다. 또한 여성가족정책에서 관심 대상은 한부모, 장애여성, 이주여성, 취약 여성에 초점을 두었으며, 일가족 양립 정책에서도 주요 대상은 자녀를 양육하는 기혼여성이었다[3]. [4]에 의하면 2008년에는 여성 비정규직이 남성 비정규직보다 29만명 많았지만, 2009년에는 59만명으로 그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고, 여성 중 NEAT<sup>2)</sup>족이 늘어나고 있다는 최근 연구결과는 여성청년이 상대적으로 더 빈곤에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여성청년은 남성청년과 다른 방식으로 빈곤을 경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여성들은 빈곤에 처했을 때, 가부장적 전통을 내재한 결과, 빈곤 가구 내에서도 불평등을 감내한다고 한다[5]. 빈곤 속에서 여성은 다중역할, 과중한 노동, 생계꾸러가기 등의 전략을

취하며 상대적으로 더 빈곤해진다는 것이다.

청년기는 생애주기 상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시도하는 과도기적 과정이다. 그러나 여성에게 주어지는 불안정한 노동자 지위는 그들이 남성 청년보다 더 독립에 불리하고, 더 빈곤에 취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전히 한국사회는 청년실업에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면서도 여성청년의 경우 결혼으로 그들의 실업문제도 종결될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를 갖고 있기도 하다. 종합하면 [4]가 지적하듯이 서비스 일자리의 소멸, 대졸 고학력 여성인력의 저조한 활용, 비정규직 임시 일용직 여성 노동자의 불안정한 지위 등이 20-30 여성들의 불안정한 현재와 미래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행연구 중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을 분석한 연구들은 성별 분석이 미흡하여 여성청년의 다차원적 빈곤에 대한 강조가 미흡하였고, 여성청년 관련 선행 연구는 주로 비정규직 및 일자리 문제에 집중되어 여성청년 삶의 다양한 차원에서의 결핍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 속에서 본 연구는 여성청년이 상대적으로 남성청년보다 더 빈곤 위험 집단일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여성청년 삶의 다양한 차원에서의 결핍을 드러내어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1인 가구를 구성한 15-29세 여성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현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검토

### 2.1 청년 다차원적 빈곤에 관한 선행연구

관련 선행 연구로는 청년의 다차원적 불평등을 계량적으로 분석한 [2]와 청년워킹푸어 19명을 심층면접한 질적연구인 [6]를 들 수 있을 것이다. [3,4,7]은 여성청년들의 취업, 일자리 문제나 관련 정책을 문제 제기하고 분석한 연구라 할 수 있는데 지면의 한계상 자세히 연구 결과를 기술할 수는 없으나, 공통점은 여성청년 집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집중 분석한 점, 남성보다 여성청년에게 더 악화되는 절망적 취업 현실, 비정규직 문제나 NEAT족 문제 등을 강조했다.

[2]는 만 19-29세 청년 표본을 2007년 청년패널 데이터에서 추출해서 청년들의 경제적 불평등, 노동 불평등, 교육 불평등, 취업 불평등 등을 통계분석 했다. 예를 들면, 경제적 불평등은 소득/자산 불평등, 켄거루족 현상, 수저계급론 등을 보이고, 노동 불평등으로는 아르바

1)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2)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로 일하지도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을 뜻하는 신조어이다.

이트, 임금노동, 임금차이, 워킹푸어 청년 등을 인구사회학적 특성 별로 그 불평등을 분석했다. 따라서 몇 개 불평등 범주마다 성별 분석을 일부 포함시키긴 했지만 남성청년과 여성청년의 차이를 간과했다.

[6]는 서울 경기 거주자 중 만 19-34세 미만 청년 중 월소득 127만원 미만인 청년 19명을 심층면접하고 그들의 워킹푸어 경험을 분석했다. 특히 저임금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청년여성의 경험이나 식생활의 빈곤, 과로로 인한 건강 해침, 비인간적 대우, 주거빈곤 경험, 불안한 재무, 인간관계의 단절, 돈 문제로 학업포기, 불안한 일상, 결혼과 출산의 포기 경험 등이 의미있게 드러났지만 여성청년에 집중한 연구는 아니며, 질적연구의 성격상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2.2 다차원적 빈곤개념

[8]에 의하면 현대의 빈곤 양상은 단순한 소득 불평등, 생존 불가능의 극심한 빈곤 상태가 아니라, 심리적 무기력감, 사회적 배제, 역량의 부족, 시간의 빈곤, 위협에의 노출 등 복합적 차원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이것을 신빈곤으로 칭했다. 그는 현대의 빈곤 연구는 이러한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8]의 관점은 빈곤을 기능(functions)과 가능성(capability)의 개념으로 세운 [9]의 실행 가능성 접근법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9]의 개념에 기초할 때, 빈곤은 여성청년으로 하여금 삶의 기본적으로 가치있는 상태와 행위를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가능성의 실패(basic capability failure)[10]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빈곤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빈곤을 소득만으로 제한하지 않고, 여성청년을 둘러싼 빈곤이 다양한 차원으로 나타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 다차원적 빈곤은 소득, 소비, 자산, 영양, 교육, 의료, 주거,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등을 차원으로 측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는데, 속한 사회나 연구 의도에 따라 달라져서, 어떤 연구들은 물공급, 보건, 위생, 주거, 에너지, 위협에 대한 노출, 성평등, 문맹률 등을 보기도 한다([11] 참조).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여성청년이라는 집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들 삶의 다차원적 빈곤을 계량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는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3.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여성 청년 집단의 다차원적 빈곤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을 분석자료로 활용한다. 1차 년도부터 10차 연도까지, 2006년 웨이브부터 2015년 웨이브 10년치 자료를 사용한다. 표본은 만 15세에서 29세에 해당하는 여성 청년이면서 1인 가구로 총 2630명이다. 한국복지패널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보다 본 연구가 분석하려는 여성 청년 삶의 다차원적 결핍을 측정하는 문항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복지패널 설문지에 포함된 다차원적 결핍 혹은 빈곤을 묻는 문항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Korea Welfare Panel data

①Income	-Income
②Work	-Unemployed -Temporary, Daily, Self-Supporting, Public Work, Inactive Population
③Housing	-Type of residence: Permanent rental, vinyl house, hut, shack, temporary building, national rental apartment -Residential Location: Underground / Underground -Housing type: rent
④Health	-If you are not healthy or have a very poor health -Responding like severe disability or illness / injury as a reason for work incapacity

소득차원 문항은 가치분소득 문항이 있고, 근로차원 문항은 실업자, 임시, 일용직 등을 질문하는 문항 등이 있고, 주거차원 문항은 임대아파트, 지하/반지하 거주, 주택 점유형태(자가 전세 월세 등)등의 문항이 있다. 건강차원 문항은 건강상태 질문 문항 및 근로무능력 사유를 묻는 문항이 있다. Table 1의 다차원적 빈곤 문항을 이용할 경우, 여성 청년의 빈곤 혹은 결핍의 판단 기준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 Poverty Determining Standard

Dimension	Questions on Survey	Standard
①Income	-Income	Deficit if income is less than 50% of median income
②Work	-Unemployed -Temporary, Daily, Self-Supporting, Public Work, Inactive Population	Deficit if one of these
③Housing	-Type of residence: Permanent rental, vinyl house, hut, shack, temporary building, national rental apartment -Residential Location: Underground / Underground -Housing type: rent	One or more of these deficiencies

④Health	-If you are not healthy or have a very poor health -Responding like severe disability or illness / injury as a reason for work incapacity	One or more of these deficiencies
---------	--	-----------------------------------

첫 번째 소득차원은 여성청년 1인 가구 작년 소득이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 결핍으로 측정한다. 근로차원은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일용/임시직 등 기준에 해당하면 결핍으로 측정한다. 주거와 건강차원은 Table 2 의 다수 문항에서 하나 이상 해당될 경우 결핍으로 측정한다. 이렇게 네 가지 차원에 대한 빈곤/결핍 판단 기준에 의거, 빈곤을 측정 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는 분석틀은 Table 3 에 제시하였다. 자료를 분석하는 통계 프로그램은 SPSS를 사용한다.

Table 3. Multi-dimensional poverty analysis

①	Deficiency Rate & Correlation Coefficient
②	Percentage of female youth with deficiencies up to N dimensions
③	Detailed analysis of N overlapping poverty with the highest proportion

(주) 분석틀은 [12]를 참조하여 재구성

첫째, 각 차원별 여성청년 1인 가구의 몇 퍼센트가 결핍으로 해당되는지 차원별 결핍률을 본다. 그리고 차원 사이의 상관계수를 분석해서, 어떤 차원의 결핍이 다른 차원이 결핍과 강한 혹은 약한 상관관계를 보이는지 그리고 그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상관관계 분석법을 통해 분석한다. 둘째, N개 차원에 동시에 빈곤인 여성청년 가구 비율을 분석한다. 4개 차원 중 최소 1개 최대 4개 차원에서 동시에 결핍인 빈곤 여성청년이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 분석한다. 예를 들어 두 개 차원 결핍 여성청년 1인 가구는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 세 개 차원 결핍 가구는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 비교 분석할 수 있다. 셋째 가장 많은 비율의 여성청년 가구가 동시 빈곤인 N개 차원에서 N은 몇개이며, 그것의 상세를 분석했을 때 그 여성청년의 가장 높은 비율이 동시 빈곤인 차원은 무엇인가를 분석한다. 두 번째 분석에서 3개 차원에 동시 빈곤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면 그 3개 차원은 무엇이며, 또 무슨 세 가지의 조합에서 가장 많은 여성청년이 해당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가령 소득, 주거, 건강의 세 가지 차원에서 결핍이 동시에 발생한 여성청년 비율이 다른 세 가지 차원의 조합보다 가장 높다면, 여성청년 빈

곤 해결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소득, 주거, 건강으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석은 중요성을 가진다.

#### 4. 분석결과

여성청년의 네 가지 차원별 빈곤율은 Table 4 에 제시하였다.

Table 4. Difficiency Rate by Poverty Dimension

	Difficiency Standard	Difficiency Rate
Income	Deficit if income is less than 50% of median income	8.2%
Work	-Unemployed -Temporary, Daily, Self-Supporting, Public Work, Inactive Population -Deficit if one of these	49.6%
Housing	-Type of residence: Permanent rental, vinyl house, hut, shack, temporary building, national rental apartment -Residential Location: Underground / Underground -Housing type: rent -One or more of these deficiencies	60.1%
Health	-If you are not healthy or have a very poor health -Responding like severe disability or illness / injury as a reason for work incapacity -One or more of these deficiencies	10.4%

소득차원 빈곤율은 8.2%로 나타났다. 가구 균등화 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경우 결핍으로 판단한 것이며 네 개 차원 중 가장 낮은 빈곤율을 보였다. 2014년 기준 한국의 청년(18-25세) 소득빈곤율은 9.0%로 특히 여성 청년의 연령대를 고려할 때 생애사를 통틀어 가장 경제활동이 활발한 시기이므로 일정 정도의 소득은 대부분이 벌어들이기 때문에 소득 기준 상 결핍에 해당되는 여성청년 비율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4개 차원 중에서 주거결핍률이 다른 세 개 차원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거유형이 영구임대,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임시가건물, 국민임대 아파트이거나 주거위치가 지하 혹은 반 지하인 경우, 혹은 주택 점유형태가 월세인 경우는 전체 여성 청년의 60.1%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결핍 다음으로 두 번째로 결핍율이 높은 차원은 근로결핍으로 실업자 혹은 임시, 일용직, 자활근로, 공공근로,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여성청년 비율은 49.6%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여성 청년 임금근로자 중 30.8%가 비정규직이며[13]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 뿐 아니라 실

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등까지 결핍의 기준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전반에 가깝게 나타난 것이다. 건강 결핍률은 소득결핍과 함께 상대적으로 결핍률이 낮게 나타났는데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에 안좋다고 응답했거나 근로무능력 사유가 중증장애, 질병, 부상 등인 경우로 여성청년의 10.4%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는 N개 차원에서 동시에 빈곤인 여성청년 숫자를 보여준다. 전체 2630명 중 670명인 25.5%는 1개 차원에서 빈곤이며, 1791명인 68.1%는 2개 차원에서 동시에 빈곤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3개 차원에서 동시에 빈곤인 여성청년은 135명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한다. 나머지 1.3%인 34명은 4개 차원에서 동시에 빈곤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Percentage of Female Youth living alone in N dimension deficiency

1 dimension	2 dimensions	3 dimensions	4 dimensions	total
25.5%	68.1%	5.1%	1.3%	100%
(670)	(1791)	(135)	(34)	(2630)

다음 Table 6 은 여성청년의 가장 높은 비율이 2개 차원 동시 결핍으로 나타났으므로 그 두 개 조합은 무엇인지 분석한 결과이다. 1791명 중 55.4%인 993명은 근로와 주거에서 동시에 결핍이었고 이 조합이 다른 조합보다 가장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 비율이 높은 두 개의 조합은 주거와 건강 동시 결핍으로 22.5%에 해당하는 403명이 이에 해당하였다. 1791명의 14.6%에 해당하는 261명은 근로와 건강에서 동시 결핍으로 나타났다. 그 외 두 가지 조합인 소득과 근로, 소득과 주거, 소득과 건강 등은 모두 3%대 이하로 나타났다.

Table 6. Two Dimensional Simultaneous Poverty among Female Youth

Two-dimensional simultaneous poverty Female youth = 1791	
Two dimensions	Female Youth(%)
income+work	43 (2.4%)
income+house	51 (2.8%)
income+health	40 (2.2%)
work+house	993 (55.4%)
work+health	261 (14.6%)
house+health	403 (22.5%)

차원결핍 간 상관계수는 Table 7 에 제시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두 결핍 차원은 근로와 주거이다. 이것은 근로빈곤이 50%가량 나타나고 주거빈곤이 60.1%로 나타났고 근로와 주거가 동시 결핍인 여성청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상통한다. 상관관계 지수는 0.60으로 이 관계는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상관관계 계수가 양의 값으로 주거결핍과 근로결핍은 양의 상관관계 즉 한가지가 결핍이면 다른 한가지도 결핍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결핍과 주거결핍간의 상관관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관관계 계수는 0.15로 그 상관관계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소득결핍과 건강결핍은 상관관계 계수가 0.20으로 이 관계는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이 관계는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한 지점으로 보인다.

Table 7.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wo dimensions

	Income	Work	House	Health
Income	1.00	0.09	0.15*	0.20+
Work		1.00	0.60**	-0.11
House			1.00	-0.24
Health				1.00

+:  $p \leq 0.10$ , \*:  $p \leq 0.05$ , \*\*:  $p \leq 0.01$

### 5. 결론 및 정책제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우리나라 여성청년의 결핍 및 빈곤은 소득결핍 및 건강결핍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근로 및 주거결핍에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을 계량적으로 분석한 [2]의 연구에서 다른 차원에 비해 청년의 근로결핍률이 크고 특히 성차가 존재해서 여성청년의 근로결핍이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나타난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 [3]의 연구에서 서울시 여성청년의 결핍 중 주거 차원이 다른 차원에 비해 심각하게 나타난 발견 또한 본 연구의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 근로결핍과 주거결핍은 상관관계 크기 또한 상대적으로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근로결핍과 주거결핍이 상호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 결과는 활발하게 경제활동 및 근로에 참여하는 여성청년들의 근로차원의 지원과 주거차원의 지원이 현실적으로 요구됨을 의미한다. 국가와 지자체에는 여성

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있지만, 청년여성을 위한 지원은 부족하다[14].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고 정규직을 증가시켜야 함은 소득 및 근로차원 안정을 위해서 필히 요구되긴 하지만 정치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결부되는 문제이고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근로차원에서는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 도움 서비스 운영, 청년여성 1인 가구 대상 전공, 경력 등 개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구축, 강소기업 일자리와의 매칭 등을 제안하는 바이다. 주거 차원에서는 무엇보다 청년여성 1인 가구가 근로 및 경제활동에 집중할 있도록 주거비를 완화할 수 있고 안전하 주거를 제공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1인 가구 주택 공급 우선순위 대상자에 여성청년 1인 가구를 포함시키고, 장기전세 주택 입주 대상자 중 청년여성 1인 가구를 할당하거나 의무배정하는 것등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여성 청년들 스스로가 다양한 차원의 삶의 결핍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는 활동 또한 필요할 것이다. 청년 인턴 실업급여 투쟁 등을 펼치고 있는 청년 유니온의 김연경 대표는 청년 실업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공동체와 활동을 제안하는데 가령 플래시몹, 온라인 참여 확대, 경제공동체 등이다. 특히 여성청년은 비정규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므로 여성청년 입장에서 공유경제 공동체, 공유경제 거주지 등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청년 연구 분야에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관심이 미흡했던 여성청년 삶의 다차원적 결핍을 통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여성청년 소득, 근로, 건강, 주거 차원의 결핍을 드러내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우선 다차원적 빈곤 차원에 우울, 자살 등 정신빈곤, 관계빈곤, 교육빈곤 등 여성청년 삶에 중요할 수 있는 차원들을 변수 부족으로 포함시키지 못한 점이다. 특히 [15]가 강조하듯이 우리나라 청년들은 실업과 정신적 우울 간의 연관성이 입증되고 있으며 여성청년의 경우는 남성에 비해 더 감정적으로 취약할 수 있어서 여성청년 삶에서 정신빈곤 차원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아울러 남성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현황을 함께 제시해서 성별 비교를 통해 여성 청년 빈곤의 차별성과 심각성을 드러내지 못한 점은 아쉬운 지점이다. 후속 연구는 여성청년의 정신빈곤 혹은 정신빈곤과 그 외 다차원적 빈곤에 대한 성 인지적 연구 및 방법론적으로 차별되는 질적연구 등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여성 청년들은 출산과 양육의 주체라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주요 집단이다. 그만큼 그들의 빈곤한 삶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이들을 위한 주거 및 근로 지원 조치가 시급히 강화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REFERENCES

- [1] S. H. Shin. (2017. 8). 93% of Female job seekers are too high. *Barriers Alpha: an Education Newspaper*. p. 20
- [2] Welfare State Youth Network. (2016). *Student Generation Multidimensional Inequalities Study*. Welfare State Youth Network Policy Institute.
- [3] E. Y. Moon. (2013). Life status and grievances of 2030 young women in Seoul. *Seoul Women's Family Foundation Research Project Report*, 1145-158.
- [4] S. J. Lee. (2010). Government job policies and jobs for young women." *A Study on Feminism*, 10 (1), 335-349
- [5] H. J. Roh. (2013). Women's social status and poverty. *Feminist Studies*, 13(2), 1-34
- [6] Welfare State Youth Network. (2015). *Working Poor Youth Qualitative Research*. Welfare State Youth Network Policy Institute.
- [7] N. R. Choi. (2008). Realities of employment among women in their 20s." *Seoul Women's Family Foundation Research Project Report*, 1-13.
- [8] S. Y. Do. (2014). Women's life in neo-poverty from the view of foucault's governance: on the case of korean agricultural migrant women workers in the 21st century. *Korean Women's Philosophy*, 22, 5-33.
- [9] A. Sen. (1992). *Inequality Re-examined*. Oxford Economic Paper, 35.
- [10] K. Choi & B. S. Suh. (2006). An exploratory study of Sen's functional approach as an alternative paradigm of poverty research: focusing on concept and measurement aspects. *Social Welfare Policy*, 25, 333-362
- [11] D. A. Clark. (2003). Concepts and Pperceptions of human well-being: some evidence from south africa. *Oxford Development Studies*, 31(2), 111-134.
- [12] K. H. Kim. (2011). *A New Perspective on Poverty*. Policy Report.
- [13] J. H. Jang & Y. J. Kim. (2016). A study on women's life in seoul single-family: 2030 living conditions and policy plan. *Seoul Women's Family Foundation Research Report*, 1-226.
- [14] J. Chu & H. Chu. (2017). Employment anxiety and work experience of young women in chonnam area. *Female Study*, 27(3), 105-148.
- [15] H. C. Shin, J. Y. Jang & J. Y. Lee.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youth unemployment and mental health graduates from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Social Studies*, 16(2), 43-75

유 지 영(Jiyoung Yoo)

[정회원]



- 1999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문학석사)
- 2005년 10월 :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Social Work(Ph.D.)
- 2008년 9월 ~ 현재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정책, 조사방법론,

여성노동

· E-Mail : jiyoungyoo@nsu.ac.kr